

“1인3역 위해 세가지 목소리 준비, 도전하기 잘했죠”

김세정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서박달이 역… “시크릿 가든” 하지원이 조언해줘



배우 김세정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제공〉

“처음에는 부담이 커어요. (1인3역) 세 캐릭터를 어떻게 구분 지을까 고민도 했고요. 해보고 나니 ‘역시 도전해보길 잘했다’ 싶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MBC 드라마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이하 이강달)에 출연한 배우 김세정은 지난 18일 양반댁 규수부터 걸쭉한 말투의 부모상(보부상), 위엄 넘치는 왕세자까지 수시로 오가야 했던 1인3역 연기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극 중 김세정은 세자빈 강연월이었다가 모종의 사건으로 기억을 잃고 부보

상으로 사는 박달이를 연기했다. 계다가 박달이와 세자 이강(강태오 분)의 영혼이 뒤틀리면서 여자의 몸에 깃든 남자도 표현해야 했다.

같은 얼굴이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인물이라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말투 연구에 공을 들였다.

김세정은 “세 가지 목소리를 준비했다”며 “이강달’에 들어간다고 하니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 평소 상대역 습관도 관찰하고,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세정이 첫 사극 도전이어서 ‘황진이’, ‘다모’ 등에 출연했던 하지원은 사

다”고 설명했다. 고민 끝에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남녀 주인공의 영혼이 뒤틀리면서 여자의 몸에 깃든 남자도 표현해야 했다.

그는 “예전에 선배와 예능 프로그램을 같이한 인연이 있어서 식사를 청했다”며 “이강달’에 들어간다고 하니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 평소 상대역 습관도 관찰하고,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세정이 첫 사극 도전이어서 ‘황진이’, ‘다모’ 등에 출연했던 하지원은 사

다”고 아쉬워했다.

이러한 노력 덕에 첫 사극이었지만 캐릭터에 잘 녹아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세정은 “저와 닮은 부분이 많은 캐릭터였다”며 “당차고, 구김살 없고, 하고 싶은 말은 하는 등 많은 부분이 비슷했다”고 꼽았다.

상대역인 강태오와 호흡이 좋았던 것도 연기에 힘을 불어넣었다며 “장난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서로 믿고 갈 수 있었다”고 떠올렸다.

드라마 ‘이강달’은 지난 20일 막을 내렸고, 걸그룹 출신인 김세정은 첫 번째 솔로 싱글 ‘태양계’를 발매하며 가수로

돌아왔다.

그는 “노래하다 보면 연기가 하고 싶고, 연기를 하다 보면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가 온다”며 “(1인3역 사극) 도전을 통해 제 연기에 새로운 발전이 있었던 시기인 만큼, 노래도 한 단계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태양계’는 성시경의 노래를 리메이크 한 곡이다. 김세정은 “너무 어려운 노래여서 성시경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다”며 “생각을 줄여라. 생각이 많아질수록 감정이 적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자 많은 것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와 가수를 오가며 활동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제가 아는 건 아직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노래와 연기 모두 과해될 구석이 많이 남아서 설렌다. 제가 일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다. /연합뉴스

척척의 오늘의 운세

음력 11월 5일

천문역원 (062)673-2427



쥐띠: 경제적인 부분에 신경이 쓰이지만, 모르는 체하고 넘어가야 편하다.

36년생 가을 끝에 단비가 내리니 그동안 기다린 보람이 헛되지 않은 하루다. 48년생 편협했던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된다. 60년생 흘러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쉬운 마음만큼은 절절하다. 72년생 시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바쁘게 다니지 말고 부지런하게 움직이자. 84년생 불확실한 일에는 손대지 말고 안전 제일주의를 선택함이 현명하다. 96년생 성실한 자세로 임하면 복집하게 영친 실리티가 간편하게 풀어진다.

행운의 수: 45 행운의 색: 노란색



소띠: 시중에 나도는 소문에 시간을 빼앗기면 많은 것을 하비할 수 있다.

37년생 시간이 충분하다고 영동한 곳에 매달리면 금방 하루해가 넘어간다. 49년생 아쉬움이 많으면 무슨 일을 해도 만족감을 느낄 수 없겠다. 61년생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타인에게 건네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가 날이다. 생빈곳을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놔두는 미덕이 필요한 하루다. 97년생 첫인상이 중요하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렵다.

행운의 수: 2.6 행운의 색: 빨간색



호랑이띠: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지 님의 것을 입으면 보기 좋지 않다.

38년생 정통성을 잊지 않고 자신의 주관을 세울 수 있다면 공명하는 운세이다. 50년생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막상 행하려 하면 걸리는 부분이 더 많다. 62년생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존재보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자. 74년생 맑은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밝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86년생 선택의 자유는 의무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98년생 누구나 인정하는 그려면 찾지 말고 모든 부분에 관심을 두자.

행운의 수: 0.5 행운의 색: 민트색



토끼띠: 곳곳에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주시하고 있으니 마음이 무겁겠다.

39년생 외적 요인이나 모자라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면 높이 오른다. 51년생 사방이 어둠으로 덮여있으나 내게 필요한 것들은 선명하게 보인다. 63년생 생각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때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75년생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빨리 택해야 진행이 쉬워지는 운이다. 87년생 옳다고 생각한 일이라도 때로는 아닐 때가 있으니 이점 잊지 말라. 99년생 빈곳이 하나도 없는 것보다 약간의 빈틈이 보이는 것이 유리하다.

행운의 수: 6.9 행운의 색: 소라색



용띠: 인간관계에 예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산적해 있으니 조언을 구하라.

40년생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 다가서면 오히려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52년생 기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면 후회하니 자세히 살피고 택하자. 64년생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으니 카멜레온처럼 변화하자. 76년생 빙 꽁동이로 오만하지만 훈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알 길이 없겠다. 88년생 간단한 이치를 깨닫지만 돌아오는 대가가 크게 상회하니 행복하다. 00년생 마음을 열고 주변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많은 것을 얻는 날이다.

행운의 수: 3.8 행운의 색: 검은색



뱀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하고 없으면 고생이 심하다.

41년생 일반적인 관념에서 벗어지지 말고 특정한 위치에서 시선을 맞추자. 53년생 간단한 일을 어렵게 생각하니 염에 있는 사람들은 몹시 답답한 날이다. 65년생 밤과 낮의 차이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한 행동이다. 77년생 결정된 사항이 아닌 일을 일부러 사서 고민하니 겁차기 쉽다. 89년생 옳고 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01년생 지나가는 바람에 연연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드넓게 바라보자.

행운의 수: 0.5 행운의 색: 주황색



말띠: 진술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었보다 시급한 일이다.

42년생 낮은 곳으로 일하려는 말은 생각하고 마음을 기다려야 하는 시점이다. 54년생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말수는 줄이는 것이 좋은 모습이겠다. 66년생 저조할 때가 있으면 상승할 때도 있으니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라. 78년생 애당초 내 것이 아닌 것은 오래 머물 수도 없으니 미련 두지 마라. 90년생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 02년생 시향착오를 잠시 겪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과정이나 경정할 것 없다.

행운의 수: 1.7 행운의 색: 보라색



양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방향감각을 상실한 상태라면 몸시 위험하다.

43년생 둑 달이 밝고 환하지만 보이지 않는 뒷면의 어두움은 누가 알라. 55년생 아니라는 생각이 깊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많은 것을 잊게 된다. 67년생 강劲하면 되는 일은 없으니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긴장을 빼리 풀자. 79년생 자신감과 더불어 진취적인 행동이 동반되니 능률이 절로 올라간다. 91년생 사람은 많으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으니 풍요 속의 반곳이다. 03년생 학리적인 사고고민이 자기 능력을 만인에게 여고 없이 보여주는 방법이다.

행운의 수: 2.5 행운의 색: 파란색



원숭이띠: 싸움은 말하고 흥정은 불이라는 말을 거꾸로 행하니가 막힐 일이다.

44년생 많은 것을 생각지 말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막을 내리자. 56년생 밀어줄 때는 힘껏 밀어주고 아니면 아예 무시하는 것이 이득이다. 68년생 일이 많거나 적거나 그것을 뒷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마음을 먹자. 80년생 약속 시간에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출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92년생 대회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인식하는 하루지만, 많은 것을 얻는다. 04년생 진실은 왜곡되고 오해하기 쉬우나 시간이 가면 자연스레 밝혀진다.

행운의 수: 7.9 행운의 색: 징마색



닭띠: 방식한 틀을 타서 내가 가진 것을 남이 가로챌 가능성이 높다.

45년생 경쟁하면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는 모양새다. 57년생 그릇에 일맞은 양은 담아야지 넘치거나 모자라면 손실이 막대하다. 69년생 선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이 따라온다. 81년생 적당한 구실을 찾아서 자기 뜻을 설명하면 많은 이가 말을 따른다. 93년생 진흙속에서 진주를 찾아내기란 생각보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05년생 초심을 잊지 않는 건 자신과의 친밀한 싸움에서 이겨야 가능한 일이다.

행운의 수: 0.4 행운의 색: 국방색



개띠: 실속을 차리는 것은 좋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봄아 진행하자.

46년생 바라는 것을 모두 얻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허락할 수 있다. 58년생 물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은 유익하나 오래 버티기는 난망하다. 70년생 가식 없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손실은 있으나 공명하는 좋은 운이다. 82년생 정립되지 않은 것을 밝히는 건 자신에게 랜스로 해만 될지 모른다. 94년생 낙관하지 않아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가슴으로 행복을 느낀다. 06년생 사전에 대비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은 좋으나 목표가 뚜렷하고 정확해야 한다.

행운의 수: 1.8 행운의 색: 산호색



돼지띠: 감정적인 대응은 실패를 자초하는 지름길이니 절대 흉분하지 말라.

35년생 주변 사람이나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47년생 작지만,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으니 다른 것에 관심을 줄이도록 하라. 59년생 자식 때문에 벌어진 틈새는 금세 메워지니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 71년생 혹시나 하는 마음은 갖지 말고 손에 쥐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말라. 83년생 모자란 것이 있어도 한숨 쉬지 말고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95년생 자제력이 강하면 사람을 얻고 지재력이 약하면 정신적으로 힘들다.

행운의 수: 3.4 행운의 색: 살구색

“1인3역 위해 세가지 목소리 준비, 도전하기 잘했죠”

이러한 노력 덕에 첫 사극이었지만 캐릭터에 잘 녹아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세정은 “저와 닮은 부분이 많은 캐릭터였다”며 “당차고, 구김살 없고, 하고 싶은 말은 하는 등 많은 부분이 비슷했다”고 꼽았다.

상대역인 강태오와 호흡이 좋았던 것도 연기에 힘을 불어넣었다며 “장난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서로 믿고 갈 수 있었다”고 떠올렸다.

드라마 ‘이강달’은 지난 20일 막을 내렸고, 걸그룹 출신인 김세정은 첫 번째 솔로 싱글 ‘태양계’를 발매하며 가수로

돌아왔다.

그는 “노래하다 보면 연기가 하고 싶고, 연기를 하다 보면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가 온다”며 “(1인3역 사극) 도전을 통해 제 연기에 새로운 발전이 있었던 시기인 만큼, 노래도 한 단계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태양계’는 성시경의 노래를 리메이크 한 곡이다. 김세정은 “너무 어려운 노래여서 성시경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다”며 “생각을 줄여라. 생각이 많아질수록 감정이 적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자 많은 것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와 가수를 오가며 활동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제가 아는 건 아직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노래와 연기 모두 과해될 구석이 많이 남아서 설렌다. 제가 일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TV

프로그램 안내 kjdaily.com PC·스마트폰 YouTube Facebook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제6회 광주매일신문 관광 대상 시상식

[Shorts]

#만화 #K팝 #야구 Z세대 ‘덕질’ 문화를 만나다

광주매일신문 ‘제12기 창조클럽’ 수료식 & 송년음악회

[LIVE]

동북아 AI 첨단농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